

## 기독교대학 신입생들의 필수 신앙 교과목에 대한 수업 적응도 분석

### Analysis of Class Adjustment in Required Christianity Courses among First-year Students of a Christian University

고우련 (Wooryeon Go)\*

이은실 (Eunsill Rhe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Abstract

Given the fact that Christian colleges cannot consider religion of applicants when they select students, it makes them pay more attention to disparity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students' learning interest and motivation produced by taking required Christianity courses. Therefore, this study explored class adjustment of first-year students attending a Christian college which has many compulsory Christianity courses in the first-year curriculum because freshmen have higher possibilities of maladaptation and dropout of school. As a result, an element negatively influenced on freshmen students' class adjustment was the difficulty of lectures. One of the reasons why they recognized those kinds of courses are difficult was lack of Christianity backgrounds and time for studying. However, three factors affected to students' class adjustment revealed capacity of learning environment, awareness of class meaning and necessity, and awareness of learning ability. And then, this research found that those three factors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their final grades. In addition, feedbacks were provided only for students who wish to get in order to help them to become aware of their own adjustment level and to make them use the information for applying it into their studies. In consequence, the more Christian students who took the feedbacks got the higher grades than students who did not take it. Therefore, taking a feedback positively influenced on learning achievement of Christian students.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about learning achievement between

---

\* 이스턴핀란드대학교(University of Eastern Finland), School of Applied Educational Sciences and Teacher Education 박사과정, woorygo@uef.fi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오석관 309호, esrhee@handong.edu

2019년 05월 01일 접수, 05월 30일 최종수정, 06월 03일 게재확정

both the whole and non-Christian students regardless of taking feedbacks. Lastly, with regards to class maladjustment level, adjustment level, and final grades,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students. In conclusion, those results imply the importance of providing proper physical and cognitive supports for class adjustment of Christian and non-Christian freshmen respectively in order to increase their internal learning motivation and to achieve their studies successfully in the required Christianity courses.

**Key Words** : Christian college, first-year student, required Christianity courses, class adjustment, learning achievement

이 논문은 2019년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연구임.

## I. 서론

대학들은 첫 1년이 남은 대학 생활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First-year Student Engagement in College”를 내세우며, 신입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De Clercq et al., 2018: 68; Conley et al., 2013: 75-76; 김수연, 2012: 140). 대학 생활 적응이란 학업, 대인관계와 같이 전반적인 대학 생활에서 발생하는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의미하며, 특별히 대학이 요구하는 다양한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는가를 나타내는 학업 적응은 이 개념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Baker & Siryk, 1984: 18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업 적응연구에 비하여 현재까지 대학 재학생 및 신입생의 수업 적응에 대한 하위 영역이나 구성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오종현 외 2017: 493). 그러나 최근 이하은 외(2016: 806-811)가 학업 적응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여 개별 대학 수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업 적응’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고, 이후 이 도구를 활용하여 오종현 외(2017: 496-502)가 잠재전이분석을 통해 학기 중 발생하는 대학생들의 수업 적응도 변화를 추정한 바 있다.

한편, 기독교 세계관 위에서 학문과 현실을 바라보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설립된 대부분의 기독교대학은 자체적으로 중요하다고 분류한 신앙 관련 수업들을 그 학교의 교육 목표 즉, 정체성과 부합하는 수업으로 인식하여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록 한다(이은성, 2017: 113). 특히, 이러한 수업이 주로 1학년 교과 과정에 집중된 대학의 경우, 해당 대학은 수업에서 기인한 중도 탈락을 지양하고 전반적인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들의 수업 적응과 학업 성취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박미정 외 2012: 328). 그 이유는 기독교대학이 지원자의 종교 여부와 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하지만 기초 필수 교양으로 신앙 과목을 운영함으로써 모든 신입생들이 의무적으로 이러한 교과목들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이며(박혜림, 2015: 373), 수업에 부적응한 학생들이 대학 1학년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 알아(김수연, 2012: 141) 학업 중단과 같은 심각한 사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학문적 탁월성과 전인교육을 추구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설립된 H 기독교대학을 사례로 하여, 필수 신앙 수업에서의 신입생 적응도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수업 적응 연구에서는 특별히 학업에 잘 적응하였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학업 성취 정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그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a) 수강생들의 종교여부에 따라 신앙 수업 적응 정도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하고, b) 종교여부에 따라 신앙 수업에서 얼마나 잘 해낼 수 있는지 인식하는 정도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하여, c) 수업 적응이 이러한 신입생들의 학업 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d) 이러한 수업 적응 정도를 학생 스스로가 인식하는 것이 신앙 수업 학업 성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크게 네 가지 연구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의 측면으로 신앙 수업 적응과 학업 성취의 관계를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대학 교양 교육 과정 평가 기준에 포함된 ‘교과목 구성의 대학 설립 이념과의 일치성’에 따라(박혜림, 2007: 120) 기독교대학으로서 신앙관련 교과과정의 운영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수업적응과 학업성취

수업 적응이란 대학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학업과는 달리, 일정한 환경 및 방법과 체

계적인 수업 구조 내에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응을 의미한다(오종현 외 2017: 493). 이것은 심리적 요인, 외부 상황, 수업의 형태와 환경, 관계적 요인, 시기적 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받는다(곽수란, 2012: 3-7). 그러므로 수업 적응 행동이란 학습자가 수업 상황에서 a) 발생하는 일들을 바르게 수용하고, b) 집중을 방해하는 내외적 요인들을 조절하며, c)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며, d)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나타낸다(원재순·김진숙, 2016). 요약하면, 학생의 관점에서 자신의 학업을 위해 대학이 제공하는 수업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업성취란 이러한 수업 적응의 평가 및 결과적 측면으로서 나타나는 일련의 학습과제를 교수-학습 과정 속에서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의미하며,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학습 활동 결과의 일부분을 의미한다(김영미, 2006: 9). 즉, 학업 성취는 교육을 통해 얻은 성과를 말하며, 이것은 교육 목적을 달성한 정도 및 학습을 토대로 개발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업 적응과 학업 성취 간의 관계를 밝혀낸 연구들을 통해 이 두 요소 사이에는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상호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조한익, 2012: 466; Brady-Amoon & Fuertes, 2011: 432). 다시 말하면, 수업에 적응을 잘하는 학생이 학업 성취가 높을 수 있다는 것과(성미향, 2006: 42; 조한익, 2014: 207) 학업 성취가 높은 학생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수업에 잘 적응하는 것이다(Conoley & Conoley, 1991: 822).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연구 경향에 근거하여 수업적응과 학업성취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즉, 수업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이 더욱 성공적인 학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업 적응은 학업 성취에 대하여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특별히 다른 교육 기관보다 대학에서 이러한 영향을 더 생각해보아야 하는 이유는 학생 스스로가 적성 그리고 흥미를 고려하여 수업을 선택하는 권한 때문이다(임대규 외 2016: 86-87). 하지만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요구하는 필수 과목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 수준이 전제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김정효 외 2017: 206-208). 즉, 필수 과목에서는 학생들은 수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율성과 내재적 동기 수준을 가지므로 수업에 첫 발을 내딛을 때 거부감이 더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적응하고 학업을 잘 해내는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외부적인 조건이 존재하는 대학 필수 수업에서 학생들의 수업 적응이 과연 학업 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 2. 기독교대학 필수 신앙 수업 적응의 의미와 종교 여부에 따른 신앙 수업 동기 수준 차이: 기대 가치 이론을 바탕으로

34개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한 기독교대학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한 박혜림(2015: 362-363)의 연구에 따르면, 사립학교에서 설립 이념을 토대로 교육목적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선정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 및 운영하는 것은 학교 존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즉, 교육목적, 교육목표, 교육과정의 세 요소는 학교 설립 이념을 달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기독교대학들은 기독교 정신이 반영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와 관련한 교양 및 전공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지정된 몇몇의 필수 과목을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필수 교양으로 가장 많이 개설된 과목은 ‘성경의 이해’로(박혜림, 2015: 373-374), 이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학업 수행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입문 과목으로 제공되고 있다(한윤식, 2003: 228).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은 기독교대학이 일반 대학에 기독교적 요소를 단순히 추가시키는 것으로 대학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이명호, 2003: 9), 기독교대학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학문적 수월성(Academic Excellence)을 지닌 학문의 공동체(Academic Community)라는 것을(박진경 역, 1992: 91) 더욱 명확하게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에서의 신앙 수업 적응은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학사 운영을 수용하는 학생 구성원의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김영종·이현철, 2016: 267), 크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학생의 수업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신입생으로 그 대상을 국한하여 논의한다. 기독교인 신입생의 경우, 신앙 수업에서 마주하는 수업 구성원들의 다양한 해석 및 견해로 인한 내외적인 신앙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때, 수업 부적응 및 중도탈락이 발생하며 이러한 현상은 대학 입장에서 비기독교인 학생들의 부적응과는 또다른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김영종·이현철, 2016: 267). 하지만 비기독교인 신입생의 경우, 기독교대학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기독교인의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수업 적응의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모든 학생에게 부여된 필수 신앙 교과 이수가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빈번하게 제기하는 불만사항 중 하나이며(이은성, 2017: 116), 특별히 종교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학생들의 학습 흥미 및 내적 동기 수준 차이에 주목하

도록 한다. 게다가 신앙 수업에 참석하는 동안 기독교대학에 입학한 비기독교인 학생들은 전에 느껴보지 못한 기독교인 학생들이 누리는 혜택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종교적인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는 해당 수업 뿐만 아니라 이후 대학 생활 4년 내 내 영향을 준다(Millet, 2015: 19). 그러므로 중등에서 고등교육으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신입생들에게 새로운 학습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De Clercq et al., 2018: 67), 특히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동기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신앙 관련 의무 수업에 참여 및 적응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경험이 될 수 있다.

Ajzen(2012)에 따르면, 종교 여부에 따른 학습 동기 수준 차이는 심리학자 마틴 피시베인(Martin Fishbein)이 기대 가치 이론(Expectancy Value Theory)을 통해 인간의 행동에 대한 동기와 태도를 예측하고 설명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선택하고 이러한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i.e., 성취)를 극대화 하고자 하는 행동 동기는 “기대와 가치” 두 가지 변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기대는 행동 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지각된 성공 가능성(i.e., 수행에 대한 믿음 및 높은 기대치)을 의미하며, 가치는 행동 후에 이러한 선택의 결과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것으로써, 이 행동을 성공한 경우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이익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동기가 반영된 행동은 기대와 가치의 곱으로 이루어지며 결국 이 두 변수가 모두 존재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즉, 기대 가치 이론에서 한 쪽 값이 0이 되면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본 수업 적응 연구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에서 학생들은 행동 동기에 의해서 학업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성취 결과로 실제 학점을 받게 된다. 이때 학점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 수행에 대한 가치이며, 종교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좋은 학점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둔다. 그리고 기대란 학생들이 신앙 수업 관련한 학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가능성을 의미하며, 신앙 수업에서 종교 여부에 따라 기대 수준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이것은 종교 여부에 따라 학생들이 학기 말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학점의 차이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행동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소인 수업 적응은 결국 이를 구성하는 두 요소인 기대와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업 적응 정도에 대한 인식을 피드백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신앙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높아진 기대가 학생들의 높은 가치인 학점과 만날 때, 결국에는 신앙 수업에

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와 성취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중도 탈락 및 이탈의 가능성이 높은 1학년 교육 과정에 신앙 필수 교과 이수가 집중된 기독교대학에서 기독교, 특히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의 수업 적응 정도를 검토하고 이들이 대학 교육에 잘 적응하도록 도울 지원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 III. 연구 방법

#### 1. 사례 선정 이유

##### (1) 대학 학습활동 질 관리 체계

H 기독교대학에서 학습 활동 질관리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는 SPARC 시스템은 총 5가지 요소(Study, Participation, Activity, Realization, Change)가 연계되어 순환하는 ‘환류 체계’이며(Figure 1, 이하은·강병덕, 2017), 이 체계 내의 적응은 수업 적응으로서, ‘대학 생활 적응1’과 같은 넓은 의미보다는 ‘개별 수업 단위’에 국한된다(고우련·김우성, 2019: 9). 즉, 학습자가 강의 및 과제와 관련한 상황들을 수용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보다 세부적인 의미를 갖는다.

##### (2) 수업 적응 도구 개발

H 대학에서 수업 적응도 설문은 총 2가지로 목적에 따라 완전히 다른 문항으로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Table 1). 1차 설문은 수업에서 제공 받은 자원에 대한 적응 정도를(학기 4-5주차 시행), 2차 설문은 수업 관련 세부 요인에 대한 적응 정도를(학기 11-12주차 시행) 측정한다. 설문 후, 피드백은 학생 전체의 적응 정도에 관하여 교수자에게,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과 적응 정도를 비교하여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된다. 즉,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뿐 아니라 교수자의 수업 개선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고우련·김우성, 2019).

---

1) 개인이 대학이라는 환경속에서 생활하며 부딪히는 변화와 도전에 적절히 반응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대처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박미정 외 2012: 328).

Table 1 Class adjustment scal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2015–2017)

Year	Descriptions	Improvements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se Academic Adjustment<sup>2)</sup> subscale of SACQ<sup>2)</sup></li> <li>• Develop 1<sup>st</sup> class adjustment scale</li> <li>→ Use 9 out of total 24 item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sup>st</sup> scale item improvement</li> <li>→ Divide the item related to level of difficulties into general class and assignment</li> <li>→ Add an item related to types of support</li> <li>→ Remove the item related to amount of time that students have spent for adjusting to the class</li> <li>• Needs of more specific class adjustment items</li> <li>→ Develop 2<sup>nd</sup> class adjustment scale</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duct surveys twice per semester</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eds to know the survey results</li> <li>→ One of causes of low survey participation</li> <li>→ Develop a feedback paper</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ovide feedbacks to lecturers and to students who wish to get</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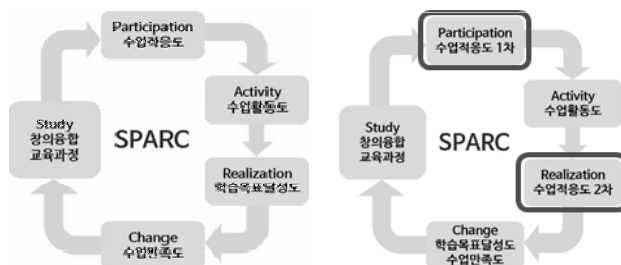


Figure 1. Existed (Left, 2015) and Improved (Right, 2016) SPARC System

### (3) 신앙 과목 중요성

H 대학은 개교 당시,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기독교적 정체성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이 말하는 학문적 탁월성을 이룩해야 할지를 심사숙고한 덕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독교 대학의 모델을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황영호 외, 2011). 이 대학은 ‘기독교 정신, 학문적 탁월성, 세계 시민 소양, 그리고 훌륭한

2) 대학 생활 적응 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이하은·강병덕, 2017에서 재인용; Baker & Siryk, 1984; 현진원, 1992 번안; 김지연, 2015 수정)

한 기독교적 인성, 특별히 정직과 봉사의 희생정신을 겸비한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지도자를 배출한다'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H 대학교 교육이념, 2018),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중심 대학이 되고자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H 대학은 인성·영성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채플 시간 이외에 신앙 과목을 필수/선택 교양 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과목들은 특별히 무전공으로 입학한 1학년 교과 과정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신입생들은 필수 신앙 교과 2-3개를 입학 첫 해에 수강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신입생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소성호, 2018), 신입생들의 99% 이상은 이 대학이 기독교대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대학 선택의 주요 이유로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대학이라서(1위)'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과 비전 때문에(3위)'를 꼽았다. 그리고 '인성 및 신앙 교육(1위)'을 가장 기대하는 학습 활동으로 생각하였다. 이것은 입학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신앙 교과목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의 학습 기대가 어느 정도 대학의 교육 목표와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H 대학교 교육제도개선 위원회, 2014)의 주관식 응답에 따르면, '신앙 교육 강화'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이유로 학교의 정체성 및 교육 이념 언급, 신앙 과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의 필요성, 그리고 사회에 나가기 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따라서 H 대학은 신앙 필수 과목에 대한 대학과 학생들의 요구가 일치하는 가운데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4) 비기독교 신입생 증가

H 대학은 대학 선택에 있어 학생들의 높은 능동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려는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2012년 이후 수시 입학 비율을 대폭 확대하였다(고우련·김우성, 2019: 12). 수시 비율을 확대한 초반에는 자발적으로 이 대학을 선택하는 비기독교인의 평균 비율이 8.95%(2012-2015년) 이었다. 하지만 전체 기독교 청년 수가 줄어들고(김은혜, 2014: 9-10) 전체 대학 입학 인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반상진 외 2013: 191-193)에서 최근 3년간 비기독교 학생 입학 비율은 12.3%로 무려 3.35%가 증가하였다(소성호, 2018).

따라서 이 대학이 기독교 학교로서 종교 관련 수업이 의무라는 것을 학부모와 지원자가 모두 충분히 예상하도록 돕는 한편, 신앙 관련 수업을 듣는 기독교 그리고 비기독교 신입생들의 수업 적응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한다.

## 2. 연구대상

H 대학은 2018년 2학기에 채플을 제외하고 신앙관련 필수 혹은 선택 교과목으로 약 30개 과목을 개설하였다. 이 중, 총 6개의 필수 교과목을 수강하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1차 338명, 2차 288명에게 수업적응도 설문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두 설문에 모두 참가한 206명 중, P/F가 아닌 Grade 형식으로 학점을 받은 148명의 응답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중 결측값 35명을 제외한 113명의 기독교인 여부를 포함한 최종 연구 대상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frequency(%))

Prof.	Lectures	No.	Language	Freshmen	Survey Participants	Christians	Non- Christians	Missing Values
A	Understanding of Bible	01	Korean	27(13.1)	18(12.2)	12(11.8)	1(9.1)	5(14.3)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02		32(15.5)	24(16.2)	19(18.6)	2(18.2)	3(8.6)
		03		50(24.3)	32(21.6)	27(26.5)	2(18.2)	3(8.6)
B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04	English	38(18.4)	31(20.9)	23(22.6)	5(45.4)	3(8.6)
		05		16(7.8)	13(8.9)	8(7.8)	0(0.0)	5(14.3)
		06		43(20.9)	30(20.2)	13(12.7)	1(9.1)	16(45.6)
Total				206(100.0)	148(100.0)	102(100.0)	11(100.0)	35(100.0)

## 3. 연구 도구

우선 1차 설문은 주관식 3문항과 강의계획서, 과제 및 수업의 난이도, 과제의 양, 강의 속도, 전반적 적응 정도에 대한 객관식 6문항이 하위 요인 없이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2차 설문에는 1차와 다른 9문항을 총 5개의 하위 요인(i.e., 학습 환경 수용

(Capacity of Learning Environment 3문항: 과제, 자료, 수업 방식 적용을 수용하는 것), 수업 필요와 의미 인식(Awareness of Class Meaning and Necessity 2문항: 수업 내용, 흥미 및 동기를 인식하는 것), 학습 능력에 대한 인식(Awareness of Learning Ability 2문항: 과제 해결 및 지식 이해 정도를 인식하는 것)와 수업 참여도(Participation 1문항)과 전반적 적응 정도(Overall Class Adjustment 1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두 설문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으며, 영어가 더 편한 학생들에게는 영문 버전의 설문지가 제공되었다.

#### 4.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교과목 담당 교수와 논의하여 데이터 수집을 승인 받은 후, 강의실 방문을 통해 설문 응답자료를 수집하였다(1차: 9월 17일~9월 26일, 2차: 10월 29일~11월 9일). 이후 SPSS 23.0을 사용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코딩 및 분석을 시행하였다. 설문분석의 결과는 설문지에 추가로 작성된 주관식 응답 분석과 더불어 교수자에게 제공되었고, 설문 결과 피드백을 희망한 개별 학생들에게는 개인과 동일과목 수강생의 적응 정도를 비교한 자료를 제공하였다(오보라·김우성, 2018).

분석 방법의 경우, 데이터의 유형과 연구 문제에 따라 객관식 응답은 빈도, 교차, 상관, 평균비교 방법으로, 주관식 응답은 R 프로그램을 통하여 핵심 단어를 시각화하는 기법 중, 빈도가 많은 단어일수록 크게 표현되는 워드클라우드 (Wordcloud)와 상관이 높은 단어간 연결을 보여주는 동시출현 네트워크(Co-Occurrence Network)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특별히, 요인분석을 통해 수정된 수업 적응 요인과 실제 받은 학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학업 성취에 대한 수업 적응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 IV. 연구 결과

#### 1. 기초통계량

1차 설문(문항별)은 Table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업에서 제공받은 자원에 대한 적응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써, 모든 문항에서 학생들은 보통 수준의 적응 정도를 보여주

었으나 전반적인 수업의 난이도보다( $M = 1.89$ ,  $SD = 1.02$ )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더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M = 3.68$ ,  $SD = 1.26$ ).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비기독교인 집단( $n = 11$ )과 기독교인 집단( $n = 102$ )의 문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로 검정한 결과, 전반적인 수업 난이도와 수업 적응도 정도 문항만 유의수준 1%에서 종교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기독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수업이 더 어렵고( $U = 280.500$ ,  $p < .01$ ), 더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U = 293.500$ ,  $p < .01$ ).

Table 3-1 Descriptive and comparative statistics of 1<sup>st</sup> class adjustment survey

Items	$M(SD)$	$U$	$p$
Syllabus (How useful) <sup>1)</sup>	3.17( .64)	430.000	.155
Lecture Speed (How fast)	3.22( .48)	512.000	.497
Adequacy of Assignment Amount	2.95( .42)	511.500	.251
Difficulty of Assignment	3.68(1.26)	397.500	.071
Difficulty of General Lecture	1.89(1.02)	280.500	.004**
Overall Class Adjustment	3.86( .84)	293.500	.006**

<sup>1)</sup> 4 Likert Scales for only this item(1 = Never, 4 = Very Useful)

\*\* $p < .01$

2차 설문(요인별)은 Table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부적인 수업 적응 요인들을 평가한 것으로써, 모든 요인에서 학생들은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업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 = 3.26$ ,  $SD = 1.15$ ).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종교여부에 따른 수업 적응 요인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n-Whitney로 검정한 결과, 수업참여도 요인만 제외하고 모든 요인이 유의수준 5%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간 차이가 있었다. 즉, 기독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학습 환경을 더 잘 수용하고 있지 못하고( $U = 279.000$ ,  $p < .01$ ), 신앙 수업의 의미와 필요성을 더 잘 인식하지 못하며( $U = 243.000$ ,  $p < .01$ ), 신앙 수업과 관련하여 스스로의 학습 능력을 더 낮게 인식하였고( $U = 315.500$ ,  $p < .05$ ), 전반적으로 이 수업에 더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U = 248.500$ ,  $p < .01$ ).

Table 3-2 Descriptive and comparative statistics of 2<sup>nd</sup> class adjustment survey

Subscales	<i>M(SD)</i>	<i>U</i>	<i>p</i>	<i>α</i>
Capacity of Learning Environment	4.17( .60)	279.000	.005**	.737
Awareness of Class Meaning and Necessity	4.07( .76)	243.000	.001**	.822
Awareness of Learning Ability	3.87( .68)	315.500	.014*	.660
Participation	3.26(1.15)	431.000	.194	— <sup>1)</sup>
Overall Class Adjustment	4.05( .68)	248.500	.001**	— <sup>1)</sup>

<sup>1)</sup> Participation and Overall Class Adjustment cannot measure reliabilities because there is only 1 item in each subscale

\*  $p < .05$ , \*\*  $p < .01$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설문의 공통 질문이었던 전반적 적응 경우, 1차에 비해서 2차에 0.19( $SD = .81$ ) 증가했으며, Table 3-1과 3-2에서 나타났듯이 종교 여부에 따른 전반적 적응 수준 역시 1차와 2차 모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를 대응 표본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147) = 2.838$ ,  $p < .01$ ). 즉, 1차보다 2차에 학생들의 적응 수준이 증가했다.

## 2. 상관관계

### (1) 1차 설문: 부적응 요인

Table 4와 같이, 전반적인 수업 난이도(어려운 정도)는 전반적인 적응 정도와 가장 큰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수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수업에 더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전반적인 수업 난이도는 종교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유의수준 1%에서 기독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들이 전반적으로 수업 난이도가 더 어렵다고 인식한다고 드러난 교차분석 결과와도 일치한다( $\chi^2(4) = 40.959$ ,  $p < .01$ ). 결국, 수업의 난이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기독교인 학생들보다 수업에 더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items of 1<sup>st</sup> survey

	Syllabus (S)	Lecture Speed (LS)	Amount of Assignment (AA)	Difficulty of Assignment (DA)	Difficulty of Lecture (DL)	Overall Adjustment (OA)
S	1					
LS	.098	1				
AA	-.094	.027	1			
DA	-.270**	-.051	.018	1		
DL	.169*	-.245**	-.067	.016	1	
OA	.196*	-.246**	-.082	-.036	.594**	1

\* $p < .05$ , \*\* $p < .01$ 

수업 난이도가 어렵다고 선택한 학생들(Table 5의 ‘1= 포기하고 싶음’, ‘2=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 포기할 정도는 아님’, ‘3=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럭저럭 따라감’, 이하 1-3)이 기독교 여부에 따라 수업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복수로 응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업의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 학생들은 ‘배운 바를 이해하기 전에 넘어가는 것’과 ‘부족한 학습량’을 그 이유로 언급하였으나, ‘불충분한 배경지식의 양’은 기독교인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 학생들의 수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였다.

Table 5 Reasons why students feel difficult in Christianity lectures (frequency)

Reasons	1			2			3			총
	C <sup>1)</sup>	NC <sup>1)</sup>	MV <sup>1)</sup>	C	NC	MV	C	NC	MV	
Lack of Christianity or bible backgrounds	0	0	1	0	<b>4</b>	0	<b>7</b>	<b>3</b>	<b>1</b>	<b>16</b>
Fast lecture speed before understanding	0	0	0	1	0	0	<b>6</b>	0	0	<b>8</b>
Professor's high expectancy	0	0	0	0	0	0	1	0	0	1
Burdens on resource usage for this lecture	0	0	0	0	0	1	2	0	0	3
Lecture provided in English	0	0	0	0	1	0	4	0	2	7
Lack of time for studying	0	0	0	0	2	0	<b>10</b>	0	2	<b>14</b>
etc.	0	0	0	0	1	2	1	0	1	5
No reasons	1	0	0	0	0	0	0	0	0	1
Total		2			13			40		55

<sup>1)</sup> C= Christian students, NC=Non-Christian students, MV= Missing Values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items of 2<sup>nd</sup> survey

	Capacity of Learning Environment (CLE)	Awareness of Class Meaning and Necessity (ACMN)	Awareness of Learning Ability (ALA)	Participation (P)	Overall Adjustment (OA)
CLE	1				
ACMN	.742**	1			
ALA	.570**	.558**	1		
P	.066	.107	.117	1	
OA	.595**	.615**	.764**	.122	1

\*\*  $p < .01$

(3) 기독교인 여부와 예상학점 및 실제학점 차이

기독교인 여부에 따른 예상학점 및 실제 학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가지 학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비기독교인 집단( $n = 11$ )을 고려하여 Mann-Whitney 비모수 검정을 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기독교인 여부에 따른 예상학점과( $U = 293.500, p < .05$ ) 실제 학점( $U = 351.500, p < .05$ )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즉,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학기말에 더 높은 학점을 받으리라 예상하였고, 실제로도 더 높은 학점을 받았다(Table 7).

Table 7 Comparison expected and final grades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students

		A+	A	B+	B	C+	C	D+	D	F	Total
Expected Grades	Christian Students	13	30	30	19	3	1	-	-	-	100
	Non-Christian Students	0	2	3	3	1	1	-	-	-	10
	Total(N)	13	32	33	22	4	2	-	-	-	110
Final Grades	Christian Students	31	15	15	18	10	7	4	0	2	102
	Non-Christian Students	0	1	3	3	2	1	0	0	1	11
	Total(N)	31	16	18	21	12	8	4	0	3	113

#### (4) 수업적응과 실제학점

위에서 수정한 수업 적응 3요인을 바탕으로 실제 학기말 성적 간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요인별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에 따른 유의확률이 학습 능력에 대한 인식 및 전체 평균을 제외하고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기독교 여부와 상관없이 수업 적응과 실제 학점은 정적 상관이 있다. 즉, B<sup>+</sup>와 C<sup>+</sup>를 받은 집단을 제외하고 요인별 적응값이 높을수록 실제로 높은 학점을 받았다 (Table 8). 이는 숫자 형식의 학점으로 상관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r = .287, p < .01$ ).

Table 8 Comparison final grades among subscales of 2<sup>nd</sup> class adjustment survey

	Capacity of Learning Environment (CLE)	Awareness of Class Meaning and Necessity (ACMN)	Awareness of Learning Ability (ALA)	M(SD)	N(%)
Grades	A+	4.35	4.38	4.11	41(.44)
	A	4.32	4.08	4.00	40(.60)
	B+	3.93	3.59	3.72	36(.61)
	B	4.12	4.13	3.63	38(.53)
	C+	4.31	4.33	3.87	39(.51)
	C	4.08	4.06	4.00	38(.26)
	D+	3.80	3.60	3.40	35(.30)
	D	3.00	3.00	3.00	30(.00)
	F	3.42	3.25	3.63	33(.32)
$\chi^2(df)$		98.992(56)**	91.082(56)**	48.612(48)	49.830(24)**
		521.816(488)			

\*\* $p < .01$

### 3. 설문 결과 피드백 효과성

학생 스스로 자신의 수업 적응 수준을 인지하고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배부한 피드백의 효과성은 피드백 수령 유무에 따른 실제-예상 학점 차이를 통해 알아보았다. 예상 학점은 학기 말에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학점을 의미하며, 2차 설문 당시 추가적으로 기재를 요구하여 수집된 정보이다. 학생들은 예상 학점을 기재한 2차 설문조사

후 그리고 실제 학점을 받기 전에 자신과 동료 학생들의 적응도를 비교한 설문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학업 성취에 대한 수업 적응 인식의 역할을 알아볼 수 있다. 전체,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집단의 피드백 수령 유무를 모르는 결측값 각각 7명, 6명,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Table 9), 전체 학생과 비기독교인은 피드백 수령 유무에 따른 예상-실제 학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기독교인은 피드백 수령 유무에 따른 예상-실제 학점 차이가 있었다( $t(94) = 2.322, p < .05$ ). 즉, 피드백을 수령한 기독교인 학생은 수령하지 않은 기독교인 학생보다 예상보다 실제로 높은 학점을 받은 비율이 많았고, 피드백을 수령하지 않은 기독교인 학생은 피드백을 수령한 기독교인 학생보다 예상보다 실제로 낮은 학점을 받은 비율이 많았다.

Table 9 Comparison between expected grades and final grades depending on both type of students and whether feedbacks were taken (Frequency(%))

	The whole participants' feedback taking		Christian students' feedback taking		Non-Christian students' feedback taking	
	Yes	No	Yes	No	Yes	No
Final > Expect <sup>1)</sup>	21(14.9)	19(13.5)	17(17.7)	12(12.5)	1(10.0)	1(10.0)
Final = Expect	20(14.2)	24(17.0)	9(9.4)	19(19.8)	3(30.0)	0(0.0)
Final < Expect	24(17.0)	33(23.4)	14(14.6)	25(26.0)	2(20.0)	3(30.0)
Total	65(46.1)	76(53.9)	40(41.7)	56(58.3)	6(60.0)	4(40.0)
	141(100.0)		96(100.0)		10(100.0)	

<sup>1)</sup> Final= Final grades, Expect= Expected grades

####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대학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학업과는 달리, 수업 구조 내에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응인 수업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특별히, 기독교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라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신앙 수업에서 신입생들의 수업 적응과 성공적인 학업성취에 필요한 자원을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수집된 데이터가 분석되었다. 먼저 학기 초에는 수업 적응을 방해하는(i.e., 수업 부정적

응) 요소를 알아보고 수업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하였으며, 학기 중간에는 수업 적응에 중요한 요소를 알아봄으로써 수업 적응에 보다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알아본 수업 부적응 및 적응 요인의 정보를 학생 스스로 인지하게 함으로써 이것이 신입생들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필수 신앙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차와 2차 설문 모두에서 기독교인 여부에 따라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즉, 기독교인 보다 비기독교인 신입생이 필수 신앙 수업에 더 잘 적응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종교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학습 흥미 및 내적 동기 수준 차이(김선정 외 2008)가 수업 적응의 차이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기독교대학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기독교인의 여부를 고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입학한 학생이 필수 신앙 교과를 이수해야 함으로 발생하는 수업 적응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독교대학에 입학한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이 수업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른 수업 구성원(e.g., 기독교인 학생과 교수자, 조교 등)은 필수 신앙 수업에서 비기독교인 학생들이 소수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을 위한 개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둘째, 학생들이 수업에 적응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수업에 얼마나 참여하였나 하는 것보다 a) 학습환경을 얼마나 잘 수용하고, b) 어떠한 이유로 이 수업이 필요한지 이해하고 인식하며, c) 이 수업을 잘 이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참여도 요인이 수업 적응도 설문에서 제외된 것은 해당 요인이 1문항으로 이루어진데다 다른 하위 요인과의 낮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실제 질문이 ‘나는 그룹 토의 및 발표에 참여하는 것이 두렵다’였는데, 교리를 전달하는 신앙수업의 특성상 질의 응답을 제외하고 그룹 토의 및 발표를 하는 능동적인 참여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수업 형태에 따라 얼마나 수업에 참여하는지를 측정하는 내용이 수업 참여도 문항에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수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지 혹은 수업에서 전달되는 지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참여하는 등 메타인지적(Meta-cognitive)인 관

점의 참여와 같은 문항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1차 설문을 통해 확인한 수업 부적응 요인은 전반적인 수업 난이도였다. 무엇보다 수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 학생들은 ‘배운 바를 이해하기 전에 넘어가는 것’과 ‘부족한 학습량’을 수업이 어려워 잘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로 언급하였으나, ‘불충분한 배경지식의 양’은 기독교인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가장 큰 수업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제시한 의견은 추가적인 학습자료와 상호작용의 기회 증가였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차 설문에서 확인한 수업 참여도가 수업적응과 관련이 없다는 결과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것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민혜리와 이희원이(2011: 67-69) 밝혀낸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강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로써 학생 참여적 수업 유도를 지적한 것과, 교수-학생 상호작용 측면에서 질문을 통한 지적 자극 부분을 나누어서 요구한 것과 일치한다. 즉, 강의를 이수하기 위해서 해야할 일들을 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시도하는 일은 충분히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신앙 과목은 학생이 얼마나 많은 종교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목이다. 게다가 최영근(2014, 60)의 기독교대학 교양 과목 관련 연구에 따르면, 기독교 교과목은 채플과 같은 대규모 학생 대상이 아닌 강의실에서 소규모의 학생들과 활발하게 상호작용 하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선교적 기회라고 하였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대화와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라고 나타났다. 그러므로 추가 자료나 상호작용의 기회는 신앙 수업에서 단순히 내용과 지식의 전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과 의문을 해소하거나 배운 것을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정립되는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꾸어 주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수업 적응은 실제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기독교인 여부에 따라 실제 학점에 차이가 있었다. 즉, 수업에 잘 적응할수록, 그리고 기독교인 학생이 비기독교학생 보다 높은 학점을 받았다. 또한 적응 정도에 관한 피드백을 수령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예상보다 실제로 더 좋은 학점을 받은 비율이 많았는데

특히 이것은 기독교인 학생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러한 점에서 적응도 피드백은 학기 종료 약 4주 전에 학생들이 남은 시간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설문 과정에서 학기말 성적을 예상해 본 이후에 배부된 피드백은 학생 개인이 자신의 적응 정도를 인식할 뿐 아니라 같은 수업을 듣고 있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봄으로써 예상보다 더 나은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교수자가 수업에서 더 제공해주어야 하는 외적인 자원만을 고민하기 보다 이렇게 학생 스스로가 학습과 관련된 내재적 동기(i.e., 기대 가치 이론의 기대 요소)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 역시 중요하다.

무엇보다 신앙 교과목에서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수인(2017)의 기독교 대학의교양 교과 중요성-만족도 분석 결과, 학생이 수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부분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실제 H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사회에 나가기 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초점을 두고 신앙교육의 강화를 강조했다라는 점이다(고우련·김우성, 2019: 13). 이 대학은 기독교 문화가 크게 자리하고 있는 특수한 학습 환경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은 세상과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환경이 없는 일반 사회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유은희, 2017: 462-464). 이것은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 학생뿐 아니라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교를 가지게 된 학생들에게도 기독교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축적된 지식을 가공하는 기회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신앙 수업을 통해 학생 스스로 어떤 삶의 목적과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성찰하고 내면화할 수 있기에 결국 신앙 교육에서 내재적 동기를 분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수업 적응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학점과 학업 성취의 관점에서 분석한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에서 말하는 전인(The whole person) 교육의 전체(whole)를 협소하게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종교는 이론일 뿐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은 종교와 신앙을 단순히 지적인 문제로 제한할 수 없으며(이승열, 2017), 수업에 적응한다는 것을 성공적인 학업 성취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윤성민(2016, 220-222)은 기독교대학의 체플 및 신앙 교과목 관련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바로 신앙 교양 교과 담당 교수가 수업

에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사회에 눈을 뜬 신입 및 재학생들에게 기독교적 관점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독교 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기독교 교과목이 보다 세밀해지고, 다양해지고, 실용적이 되어서 현 세대의 감각과 필요에 맞는 실제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는데(구제홍, 2007) 탁월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이은성(2017, 118-119) 또한 그의 연구에서 다른 전공과의 융합형 기독교 교양교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문적 융합을 통해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보다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이며 역동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종합해보면, 기독교대학이 학업 수행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가 기독교인 학생들에게는 도전이, 비기독교인 학생들에게는 호기심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행동적인 측면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신앙관련 수업에 대해 적응한다는 것만으로 개별 강의를 아우르는 기독교대학의 신앙 교육의 전체적인 운영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단 간 정규분포를 맞출 수 있도록 더 많은 비기독교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전체 신입생의 12.5% 만이 비기독교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소성호, 2018) 신입생 관련 적응도 설문에 현재보다 더 집단 간 균형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데이터 양을 보충하기 위해 인터뷰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신앙 수업 적응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더욱 유익할 것이다. 또한 1·2학기에 모두 시행되는 신입생 필수 신앙 수업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양적 연구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후속연구에서는 응답 수의 제한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하지 못하였던 수업적응과 학업성취 간 인과관계 규명과 더불어 종교여부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과 같은 보다 심층적인 구조방정식 분석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독교대학에서 교양교과를 통한 신앙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전략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들은 필수 신앙 수업을 수강하는 모든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신입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한 학습 지원에 교수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수업 자원들 뿐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는 수업에 대한 정보들 (i.e., 수업 적응 정도)이 내재적 학습 동기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러므로 이 연구가 학생 개개인의 수업 및 대학 생활 적응과 더불어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교육의 핵심이자 신입생 교과 과정에 집중된 필수 신앙 수업의 보다 발전된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고우련 · 김우성 (2019). **2018 SPARC 개선 연구 보고서**. 한동교육개발원.
- [Go, W. R., & Kim, W. S. (2019). *SPARC Improvement Research Report in 2018*. Handong Institute for Scholarship and Education Development.]
- 곽수란 (2012). 학업성취, 교사기대 그리고 학업적응과의 관계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2(1), 1-24.
- [Kwak, S. R. (2012). A causality analysis of the academic achievement, teacher's expectation and student's academic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2(1), 1-24.]
- 구제홍 (2007). 정보사회의 기독교대학의 인성교육: 명지대학교 인성교육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18), 35-68.
- [Koo, J. H. (2007). Education for personality in Christian universities in the information society: Centered on a case study at Myongji university.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18), 35-68.]
- 김선정 · 현우식 · 손호현 (2008). 비기독교인을 위한 기독교교양교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학회**, 19(19), 95-133.
- [Kim, S. J., Hyun, W. S., & Son, H. H. (2008). A study on the need of specialized Christianity courses for the non-Christian students: A case study of Yonsei university.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19(19), 95-133.]
- 김수연 (2012). 대학 학업 중단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1학년 적응 과정 분석. **진로 교육연구**, 25(3), 139-160.
- [Kim, S. Y. (2012). A study on college freshmen's adaptation process influencing on the dropout: A basic research of the college dropouts' mobility path and structur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5(3), 139-160.]
- 김영미 (2006).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Kim, Y. M.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Adjustment and Learning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김영종 · 이현철 (2016). 기독교대학에서의 학교부적응 및 중도탈락에 대한 질적연구. **대학과 선교**, 30, 263-295.

- [Kim, Y. J., & Lee, H. C. (2016). Qualitative research on school maladjustment and dropout in Christian university. *Universtiy and Mission*, 30, 263-295.]
- 김은혜 (2014). 한국교회 청년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 윤리적 대안. **기독교사회윤리**, 30, 7-36.
- [Kim, U. H. (2014). A study of the crisis of Korean church based on the issue of the breakaway of young adults and a Christian ethical answer. *The Society of Korean Christian Social Ethics*, 30, 7-36.]
- 김정호 · 허지선 · 한신영 (2017). 기독교 학교의 종교교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과정 숙의를 통한 신조(Platform) 구축. **기독교교육논총**, 52, 181-220.
- [Kim, J. H., Huh, J. S., & Han, S. Y. (2017). Developing a platform for the improvement of religious education through curriculum deliberation from the Christian school perspective.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52, 181-220.]
- 민혜리 · 이희원 (2011). 학생들이 인식하는 좋은 강의의 특성 연구. **열린교육연구**, 19(1), 57-88.
- [Min, H. R., & Lee, H. W. (2011). The characteristics of good teaching based on the students'awareness: The comparative analysis of actual learning experiences between a university in Korea and oversea universities.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19(1), 57-88.
- 박미정 · 함영림 · 오두남 (2012). 전문대학 신입생의 의사결정역량,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만족도 정도 및 상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4), 327-337.
- [Park, M. J., Ham, Y. L., & Oh, D. N. (2012). Levels and their correlations of decision-making-competency, adjustment to college life,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in freshme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4), 327-337.]
- 박진경 역. (1992). **기독교대학의 이념**. Holmes, A. F. (1987). *The Idea of Christian College*. 대구: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 [Park, J. K. (1992). *The Idea of Chrisrian College*. Daegu: CUP. Trans. Holmes, A. F. (1987). *The Idea of Christian College*. Michigan: Willig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박혜림 (2007). 대학 교양 교육과정의 평가 준거 개발 연구. **교육과정연구**, 25(3), 109-132.
- [Park, H. R. (2007). Research and development of evaluation domain, elements, and criteria for general curriculum of the 4-year college. *The Korean Society for*

- Curriculum Studies*, 25(3), 109-132.]
- 박혜림 (2015). 기독교대학의 교육목표-교육과정 연계성 분석. **신학과 실천**, 44, 359-394.
- [Park, H. R. (2015). The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educational goals and curriculum in Christian colleges. *Theology and Praxis*, 44, 359-394.]
- 반상진 · 신현석 · 노명순 · 조영재 · 박민정 · 김영상 (2013).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 대책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0(4), 189-211.
- [Ban, S. J., Shin, H. S., Noh, M. S., Cho, Y. J., Park, M. J., & Kim, Y. S. (2013). University enrollment quota adjustment and restructuring according to decline in school age popul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of Education*, 20(4), 189-211.]
- 성미향 (2006). **초등학생의 성공지능과 학교생활적응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 [Sung, M. H. (2006). *The influence of successful intelligence and school adjustment on academic achievement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inju, Korea.]
- 소성호 (2018). **신입생설문조사결과**. 입학사정관팀, H 대학교.
- [So, S. H. (2018). *First-year Student Survey Report*. Admission Department, Handong Global University.]
- 오보라 · 김우성 (2018). **2017 SPARC 개선 연구 보고서**. 한동교육개발원.
- [Oh, B. R., & Kim, W. S. (2018). *SPARC Improvement Research Report in 2017*. Handong Institute for Scholarship and Education Development.]
- 오종현 · 오보라 · 김우성 (2017). 대학생들의 수업 적응도에 대한 잠재전이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7), 489-508.
- [Oh, J. H., Oh, B. R., & Kim, W. S. (2017). Latent Transition Analysis of the Class Adjustment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7), 489-508.]
- 원재순 · 김진숙 (2016).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3(9), 177-205.
- [Won, J. S., & Kim, J. S. (2016). A meta-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9), 177-205.]
- 유은희 (2017). 기독교교육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출구면접: 기독교교육과 학생들이 지각하고 경험한 전공교육 과정. **신학과 실천**, 53, 459-496.
- [Yoo, E. H. (2017). Graduating senior exit interview on their perceptions and experiences for Christian education curriculum. *Theology and Praxis*, 53, 459-496.]

- 윤성민 (2016). 채플과 기독교 교양과목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31, 199-226.
- [Yoon, S. M. (2016). A study on the effective operation of Chapel and Christian Liberal Education in Kangnam University.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31, 199-226.]
- 이명호 (2003). **한국 기독교대학의 정체성 위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Lee, M. H. (2003). *A Study on Identity Crisis of Christian University in Korea*. Master's Thesis Goshin University, Busan, Korea.]
- 이수인 (2017). 기독교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를 중심으로. *ACTS 신학저널*, 35(1), 75-107.
- [Lee, S. I. (2017). The analyses of students' perception on the satisfaction, learning experiences, and learning outcomes of general education of a Christian university: Mainly with Asian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ACTS Theological Journal*, 35(1), 75-107.]
- 이승열 (2017). **기독교대학 채플의 활성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LEE, S. Y. (2017). *A study on revitalization strategy of the student Chapel of a Christia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Cheonan, Korea.]
- 이은성 (2017). 교양과목을 통한 기독교대학 인성교육의 전략적 운영 방안 탐색. *기독교교육논총*, 51, 101-124.
- [Lee, E. S. (2017). Seeking an effective approach for the personality education through Christian liberal arts courses in Christian university.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52, 101-124.]
- 이하은 · 강병덕 (2017). **2016 SPARC 개선 연구 보고서**. 한동교육개발센터.
- [Lee, H. E., & Kang, B. D. (2017). *SPARC Improvement Research Report in 2016*. Handong Educational Development Center.]
- 이하은 · 오종현 · 강병덕 (2016). 대학생들의 수업 적응도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를 위한 연구.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16(10), 795-824.
- [Lee, H. E., Oh, J. H., & Kang, B. D.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ass Adjustment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0), 795-824.]
- 임대규 · 권해숙 · 오원정 (2016).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도, 수업참여도, 취업가능성, 취업전략, 전공희망취업에 미치는 영향 - 세무회계전공 대학생들

- 을 대상으로. **취업진로연구**, 6(4), 85-109.
- [Lim, D. K., Kwon, H. S., & Oh, W. J. (2016). The Influence of Major Selection Motive on Major Satisfaction, Instruction Participation, Employability, Employment Strategies, Major Hope for Employment - In case of students who are majoring in Tax and Accounting.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6(4), 85-109.]
- 조한익 (2012).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취목표지향, 희망 및 학습 전략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9(3), 465-483.
- [Cho, H. I. (2012). The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hope, and learning strategy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chievement.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9(3), 465-483.]
- 조한익 (2014). 초등학생의 학업·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 자기결정성,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초등교육연구**, 27(4), 207-229.
- [Cho, H. I.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cademic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self-determination theory,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7(4), 207-229.]
- 최영근 (2014). 학원복음화 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교대학 선교의 신학과 효율적 방안: 한남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26, 37-71.
- [Choi, Y. K. (2014). Theology and strategy for campus ministry in the Christian university.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26, 37-71.]
- H 대학교 교육이념, <http://www.handong.edu>. (검색일 2018.9.10).
- [H- University Mission Statement & Vision. <http://www.handong.edu>. (2018.9.10)]
- H 대학교 교육제도개선위원회 (2014).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 결과 (학생 및 졸업생) 주관식**. H 대학교.
- [H- Education System Improvement Committee. (2014). *H- Education System Improvement Research Report*. H- University.]
- 한윤식 (2003). 기독교대학으로서의 한동대학교 그 가능성과 구현 방안. **통합연구**, 16(2), 225-251.
- [Han, Y. S. (2003). How can Handong university develop into a genuine Christian university. *Journal of Integrative Studies*, 16(2), 225-251.]
- 황영호·김형겸·김대욱·서병선·유기선·곽진환 (2011). **신앙교육과정 개편보고서**. 신앙교육원, H 대학교.
- [Hwang, Y. H., Kim, H. G., Kim, D. O., Seo, B. S., Yoo, K. S., & Kwak, J. H. (2011). *Christian Core Curriculum Revision Paper*. Center for Christian Foundation,

H- Universtiy.

- Ajzen, I. (2012). Martin Fishnein's Legacy: The Reseasoned Action Approach.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40(1), 11-27.
- Baker, R.,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o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
- Brady - Amoon, P., & Fuertes, J. N. (2011). Self-efficacy, Self-rated abilities, adjust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9(4), 431-438.
- Conoley, J. C., & Conoley, C. W. (1991). Collaboration for child adjustment: Issues for school- and clinic-Based psychologis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6), 821-829.
- Conley, S., Travers, V., & Bryant, B. (2013). Promoting psychosocial adjustment and stress management in first-year college students: The benefits of engagement in a psychosocial wellness seminar.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61(2), 75-86.
- De Clercq, M., Roland, N., Brunelle, M., Galandm B., & Frenay, M. (2018). The delicate balance to adjustment: A qualitative approach of student's transition to the first-year at university. *Psychologica Belgica*, 58(1), 67-90.
- Millet, H. K. (2015). The year of change: Challenges faced by first-year students based on individual identities. Senior Honors Projects, 2010-Current, 102. Retrieved from <https://commons.lib.jmu.edu/honors201019/102>

논문초록

## 기독교대학 신입생들의 필수 신앙 교과목에 대한 수업 적응도 분석

고우련 (이스턴 핀란드 대학교)

이은실 (교신여자/한동대학교)

기독교대학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기독교인의 여부를 고려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 필수 신앙관련 교과목 이수가 종교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학습 흥미 및 동기 수준과 관련되는지에 주목하도록 한다. 이에 본 연구는 1학년 교육과정 에 필수 신앙교과목이 집중된 대학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적응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생들의 필수 신앙 수업 부적응 요인은 전반적인 수업 난이도였으며, 학생들이 수업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이유로는 불충분한 배경지식과 학습량을 꼽았다. 둘째, 신앙 수업 적응 요인은 학습환경 수용, 수업의 필요와 의미 인식, 그리고 학습 능력 인식으로 드러났다. 셋째, 이러한 수업 적응 요인과 실제 학기말에 받은 학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넷째, 학생 스스로 적응 수준을 인식하여 학습에 적용 하도록 제공한 적응 수준 피드백은 기독교인 학생의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수업 부적응, 적응 수준 그리고 예상학점 및 실제학점 모두는 기독교인 여부에 따라 집단간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필수 신앙 수업을 수강하는 신입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해서 기독교인 여부에 따라 학생의 학습과 관련된 수업 적응과 같은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데 필요한 물리적, 인지적 차원의 구별된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기독교대학, 신입생, 신앙 필수 교과, 수업 적응, 학업성취